

# 지지율 높이기·비윤 끌어안기·공정한 공천관리 '3대 난제'

## 김기현 국립 새 당대표 과제와 전망

전대 균열 계파 갈등 해소 급선무  
친윤계 지지 당선 리더십 시험대  
당정관계·대야관계 재건도 시급

국민의힘이 8일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면서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로 집권 초만 여당 지도부가 붕괴된 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6개월간 당이 운영돼 왔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당장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전대 기간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당 대표가 되더라도 임기 중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안·황' 후보는 김 후보에게 수차례 사퇴를 요구했고, 특히 안 후보는 전대 하루 전날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했다.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른 여진이 이어질 거라 보는 이유다.

전대 과정에서 재확인된 당 주류인 친윤 그룹과 비윤계 간 계파 갈등 해소도 지난한 숙제다.

당 지도부는 그간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뚝뚝 두가 친윤"이라며 계파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이나 안철수·천하람 후보가 레이스를 뛰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에 김 대표가 당직 인선 등에서 비윤계를 꺼리는 탕평 의지를 보일지 주목된다. 2년 임기 김 대표

는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막중한 임무를 9달째 뒀다.

따라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던 수도권을 탈환할 토대를 닦아낼지가 김기현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공천 파동'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숙제도 있다.

당정 관계는 원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심'(尹心)이 김 대표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때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윤계를 중심으로 김 대표가 대통령실에 '중속된' 여당 대표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밀당(밀고 당기기)하는 부부 관계'라는 표현에 걸맞은 당정 관계를 정립해내는 게 당면 과제로 꼽힌다.

전대 과정에서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지율을 '폭증' 시켰던 김 대표가 앞으로 자신만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에서 '대야 관계'는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를 기점으로 여야 관계는 이미 극한 대치로 접어들어 상황이라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김 대표 역할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등에 맞서 대야 투쟁을 총지휘하는 것이 될 거란 관측이 많다.

당장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에 이른바 '쌍륙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내년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은 물론이고 국정 과제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김 대표의 대야 관계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예찬, 조수진, 김병민, 김기현, 김재원, 태영호. /연합뉴스

## 한일 미래협력 예고했던 윤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은 공약 실천"

### 국무회의서 "취임초부터 해법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은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김대중-오부처 선언을 계승해 미래 지향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강제징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고, 한일 간에 안보·경제·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도 외교부에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일 정상 서클 회담을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서도 "한일 간 서클 회담을 통한 신뢰 회복과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양국 시민 간의 열린 교류 확대'는 향후 협상 의제를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외교부의 경우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에서 "핵

심 현안 조기 해결을 통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추진"을 당면 과제로 언급했다.

여기서 '핵심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제반 현안'은 일본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각각 의미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거듭 약속한 만큼 향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외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공동선언이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8년 만인 1963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엘리제 조약'을 모델로 거론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 "미, 한·일에 핵우산 관련 새 협의체 창설 타진"

### 日 요미우리 신문 보도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제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의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제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도 포함된다.

현재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 미일 간에 각각

협의체가 있다.

미국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고 핵 억제력 관련 논의를 심화하며,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국은 핵 억제력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을 참고해 한국,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한미일 협의체 참가자와 협의의 주제를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에 나선 것은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 핵무기 사용 의사를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이 한국과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한·미, 윤 대통령 4월 방미 핵심의제 조율

한국과 미국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내건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 어떠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

의한다. 같은 날 국빈만찬도 예정돼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26일 국빈 만찬을 하고 그 날 정상회담도 열린다. (윤 대통령이) 앞뒤로 최소한 사흘 정도는 워싱턴에 있을 것"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추가로 돌아볼 여지가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린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이다. 이 당국자는 "70년을 되돌아보고 현재 동맹도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방법,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공산이 크다.

한미는 다음달 북한의 다양한 무력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까지 핵 훈련과 ICBM 및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